

KTX나주역 일대 '투자선도지구' 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원도심·혁신도시 상생발전 기대 국비 100억 지원...규제특례 적용

KTX나주역 일대에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기반한 지역 상생과 경제 발전 랜드마크로 도약한다.

나주시는 송월동 KTX나주역 일원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성장촉진형 투자선도지구'가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투자선도지구 18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11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지정 시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국토부 관련 공모 선정에 이어 지구지정 절차에 힘쓴 결과 8월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에는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나주역 일원(송월동·도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KTX나주역 일대 전경.

(나주시 제공)

계동) 77만9948㎡부지에 2138억원을 투자한다.

(가칭)에너지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스포츠파크 등 에너지 연구·업무시설을 비롯해 산업·상업·의료·관광·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융복합 지구 조성이 핵심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나주시가 시장 핵심 목표로 강조해온 지역 상생발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사

업이 지난 4월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광역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한 나주역 일대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 성과는 민선 7기 시장 핵심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온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호남의 중심도시 마중물이 될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소록도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자”

고흥군 7일 지정 추진 학술대회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참여 가능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가운데 하나인 일제강점기 한센인의 애환이 고스란히 남은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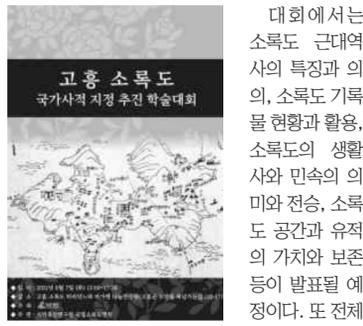
고흥군은 7일 오후 1시 고흥 마린안노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조성돼 100년이 넘는 동안 한센인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소록도 한센인 관련 유적 및 유물로 전남 문화재자료 1건, 국가등록문화재 16건이 지정 및 등록돼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에도 한센인들의 다양한 유물과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다.

고흥군은 한센병을 극복하고자 했던 소록도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의 가치를 높이고자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대회에서는 소록도 근대역사의 특징과 의의, 소록도 기록물 현황과 활용, 소록도의 생활사와 민속의 의미와 전승, 소록도 공간과 유적의 가치와 보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전체 토론을 통해 소록도의 가치와 보존의 당위성 등이 논의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고흥군의 보석 같은 소록도에서 기념비적인 학술대회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학술대회를 통해 소록도가 빛을 받고 사적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유튜브 브로드 생중계한다. 유튜브 채널 '고흥 소록도 국가사적 지정 학술대회'를 찾으면 실시간으로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해남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본격 가동

학교·보육시설 등 78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해남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해남군은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전 학교와 보육시설 등 78개소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시작했다.

마산면 상동리에 위치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관내 학생들에게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급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9월 한 달간 발주물량 중 해남산 공급량이 기준 평균 56%에서 72%까지 늘어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해남읍 구교리 로컬푸드직매장도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곧 개장한다.

군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월 시범운영 후 10

월 초 개장식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에 신규 출하자 추가 모집과 함께 생산자에 대한 출하 방법, 출하 규칙 등을 교육한다.

현재 직매장 출하 희망 농가는 300여 명으로 앞으로 500여 농가까지 확대하고 품목 또한 500여 상품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직매장은 부지면적 2078㎡, 연면적 991㎡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신선농산물, 가공품 등 지역산 농산물과 정육코너 등이 들어선다.

2층은 센터 사무실과 소비자 및 생산자의 소통공간(쉼터), 식생활교육장 등으로 구성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본격적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동으로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체계를 보장하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이상의 합평군수가 2021년 합평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호 축수산과 가족위생팀장, 위대한 주무관, 이상의 합평군수, 송진환·서정준 주무관.

합평군, '체감행정 우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사례 16건 심사 최종 4명 선발

합평군이 군민 체감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합평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 4명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9월 정례조회에서 이상의 합평군수가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발했다.

실무 각 부서 추천 등으로 접수된 16건의 사례 중 1차 실무심사와 2차 합평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4명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에는 퇴비사 시설 확충이 절실했던 농가의 실정을 고려,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 축사 및 퇴비사 설치를 허가토록 하고 가축분뇨 처리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을 가능케 하는 등 규제 혁신에 기여한 김광호 축수산과 가족위생팀장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엑스포공원 합평천지길 조성사업과 관련, 직영공사를 통해 각종 수목 식재 등의 예산을 대폭 절감한 축제엑스포사업소 위대한 주무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편의를 위해 택시·전세버스 수송대책을 추진한 합평읍 송진환 주무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한 보건소 서정준 주무관이 수상했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 직원들이 우대받는 적극행정 제도가 공식사회 전반에 정착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평군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특별휴가 등 8개 항목 중 1개 이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 폭우 대비 하천 통행 자동 차단시스템 내년 여름까지 2곳에 설치

곡성군이 폭우 등을 대비해 하천 출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곡성군은 폭우 등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하천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곡성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 섬진강을 횡단하는 고달면 두가세월교와 두곡세월교에 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천출입 차단사업은 IoT 기반의 자동화 출입 차단 시스템이 도입돼 취약시간대 폭우 등이 내렸을 경우 신속하게 대비가 가능하다.

곡성군은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해 내년 우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동 차단시스템과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과 연계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